

1958년 중국 ‘항미원조’ 전쟁 기억의 정치성과 문화적 재현의 다층성

한 담*

<目 次>

1. 들어가며
2. 전쟁 기억은 ‘왜’ 소환되었는가?
 - 1) ‘항미원조’ 국가 서사의 변화: 기록영화 『항미원조』와 『영웅찬가』의 통시적 비교
 - 2) 1950년대 후반, 중국식 사회주의로의 전환과 ‘항미원조’의 정치성
3. 전쟁 기억의 문화적 재현은 ‘어떻게’ 이뤄졌는가?
 - 1) 서사 층위에 따라: 기록영화 『영웅찬가』와 극 영화 『우의』
 - 2) 창작 주체에 따라: 북·중 영화 속 재현된 국제주의의 차이
4. 나오며

1. 들어가며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은 우리에게 동족상잔과 민족 분단의 비극이었다. 그러나 그해 10월, 공산 진영인 북한을 돕기 위해 참전한 중국은 이 전쟁을 미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조선¹⁾ 해방과 세계평화를 수호하는 전쟁, ‘항미원조(抗美援朝)’로 기억한다. 명명의 정치는 기억의 정치이기도 하다.²⁾ 중국이 세계

*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연구원

1) 당시 중국에서 북한은 ‘조선’이라고 불렀다. 영화에서도 기본적으로 ‘조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한국과 구분해야 할 때는, ‘조선의 남부’, ‘조선의 북부’로 나누었다. 본고에서는 ‘북한’의 명칭을 주로 사용하되, 필요와 문맥에 따라 적절히 혼용하였다.
2) 왕후이, 백원담, 『20세기 중국 역사의 시각에서 본 아시아 평화: 항미원조 전쟁(6·25)을

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와 싸운 이 전쟁은 제국주의와 식민으로 점철된 굴욕적인 중국 근현대사를 끊어낸 '승리'로 각인되었다. 첸리췌(錢理群)은 그 시기 거의 모든 중국인과 지식인들이 '이제부터 중국은 다시 일어섰다. 국제적으로 독립과 평등의 지위를 얻었다'라는 민족 자부심을 느꼈다고 회상한다.³⁾ 그의 말대로 민족 자주와 자존감은 동방의 낙후 국가가 현대화 길로 향하는데 중요한 정신적 자원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신중국 인민들에게 이 전쟁은 제국주의에 고통받는 피억압자, 조선 인민의 평화를 지키는 '정의의 전쟁'이기도 했다. 세계가 착취자와 피착취 계급으로 이분되어 있다는 사회주의적 세계관 속에서 '항미원조'는 아시아의 고통받는 동방국가를 위해 중국이 일정 몫을 해야 한다는 초보적인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⁴⁾ 정신을 학습하는 중요한 경험으로 남았다.

하지만 참전 초기, 대다수 중국 인민들은 자국을 지키기 위한 것도 아니고 더구나 원자폭탄을 가진 미국과 싸워야 하는 이 전쟁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웠다.⁵⁾ 국내외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국민이 동의할 수 없고 명분도 없는 전쟁을 하게 되면 정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위기를 맞이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중공 정부는 전국적 규모의 '항미원조 대중운동'을 시행하여 대 인민선전과 교육을 통한 전쟁 동원과 인민 통합을 도모하였다. 그중 문예는 추상적이고 난해한 관방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인민들에게 친숙한 방식으로 접근, 신중국이 지향하는 새로운 사회주의 세계관을 내면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문화정치 수단이었다. 전쟁 시기, 당 주도

다시 보며, 『황해문화』 제83호, 78쪽.

3) 錢理群, 「我們這一代人的世界想像」, 『書城』, 2006년 6기, 15쪽.

4) 전쟁과 혁명 시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란 전 세계 프롤레타리아와 피억압 민족이 연합하여 '세계혁명'의 수단으로 제국주의 통치를 종식시키는 것을 뜻한다. 秦亞青·朱立群, 「新國際主義與中國外交」, 『外交評論』, 2005년 5기. 중국의 한국전쟁을 뜻하는 '항미원조' 명칭에는 막 해방한 중국이 빈곤한 계급이자 미 제국주의에 고통받는 피억압 민족 '조선'을 도와야 한다는 국제주의 정신을 담고 있다. 문예 속에서는 주로 인민지원군이 미군으로부터 조선 인민을 보호하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5) 호우송타오(侯松濤)는 논문에서 항미원조 전쟁 당시, 민중의 보편적인 심리상태를 크게 세 가지(一是畏戰求安心態, 二是漠然無謂心態, 三是恐美、崇美和親美心態)로 요약한 바 있다. 이는 오랜 전쟁으로 인한 염증과 안락한 생활을 추구하는 심리상태, 그리고 미국에 대한 착오적 심리상태이다. 특히 이 전쟁이 자국 영토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중국 인민들에게 직접적이고 강렬한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侯松濤, 「抗美援朝運動與民衆社會心態研究」, 『中共黨史研究』, 2005년 2기, 20-21쪽.

의 사회주의 문예 규범에 따라 고안되고 각계각층에서 생산된 '항미원조' 서사들은 타국에서 벌어지는 '상상 속의 전쟁' 경험을 채워냈다. 하지만 휴전 후 그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는데, 중국의 '항미원조' 문학 연구자 창빈(常彬)은 당시 주요 당 기관지, 신문, 문학 잡지, 출판사 등에서 창작된 작품 수를 토대로 1950년부터 1954년에 절정을 이루고 그 뒤로 작품이 현저히 줄어든다고 밝혔다.⁶⁾ 이는 사회주의 문예의 정치적 임무를 고려할 때, 1953년 휴전으로 종결된 이 전쟁에서 급박한 전쟁 동원의 필요성이 사라지고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국내 문제로 방향을 틀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58년 두 번째 창작 절정기가 도래했으니 바로 북한 내 중국지원군의 전원 철수가 이뤄진 시점이다. 이 시기 전쟁 회고 붐은 단순히 평화적 철군이라는 군사적 이벤트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을까? 알라이다 아스만의 '문화적 기억' 개념은 이러한 의문점에 실마리를 주었다. 아스만에 따르면, 기억된 과거는 정당성 확보의 문제이자 현실의 해석이며, 가치의 정당화로 연결된다. 그러므로, 기억에 대한 문제는 정치적 동기화, 민족적 정체성 형성이라는 주제로까지 이어진다고 한다.⁷⁾ 이에 본고에서는 1958년을 '기억된 과거'의 주요 기점으로 삼아, '항미원조'가 다시금 '왜' 그리고 '어떻게' 기억되었는가를 고찰한다. 아스만의 언급처럼, 기억된 과거는 당시 처한 현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므로 2장에서는 먼저 관방서사에 가까운 기록영화 「영웅찬가(英雄贊)」(1958)를 중심으로 1951년과 달라진 '항미원조' 공적 서사 변화를 고찰한다. 서사 변화에서 유추되는 당시 중국의 국내외 정세는 이 전쟁이 '왜' 소환되었는지, '항미원조'의 정치적 유효성을 짚어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글에서 주목한 것은 '어떻게'에 해당하는 기억의 문화적 재현 양상이다. 정치선전과 교육의 목적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주의 문예에서 비록 창작의 자유는 제한되었으나 모든 서사가 일률적이지는 않았다. 본문에서는 문화적 재현의 다층성을 '서사 층위'와 '창작 주제'로 나누어 다각도로 살펴볼 계획이다. 먼저, '기록영화' 「영웅찬가(英雄贊)」(1958)와 '극 영화' 「우의(友誼)」(팔일

6) 常彬, 「抗美援朝文學敘事中的政治與人性」, 『文學評論』, 2007년 제2기, 59-60쪽.

7) 알라이다 아스만 저, 변학수 채연숙 역, 『기억의 공간: 문화적 기억의 형식과 변천』, 서울: 그린비, 2011년, 110쪽.

영화제편창, 1959)를 통해서도 관방서사와 대중서사⁸⁾ 간 '서사 층위'에 따른 전쟁 기억 서사를 고찰한다. '창작 주체'에 따른 기억의 재현은 북·중 양국이 서술한 '극 영화' 속 서사 차이를 분석한다. 본문에서 다룬 북한 영화는 1959년 중국에서 더빙 제작되어 큰 사랑을 받은 「전우(戰友)」(조선 필름)이다. 이 세 편의 영화는 모두 '중조우의(中朝友誼)'라는 공통 주제로 평화적 철군과 국제주의적 우정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하지만 전쟁 기억 서사는 서사 층위와 창작 주체별로 모두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조선 형상화'를 통한 국제주의 재현에서 두드러진다. 같은 주제를 다룬 다양한 문화적 재현들은 신중국과 인민의 한국전쟁 기억 내부를 들여다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전쟁 기억은 '왜' 소환되었는가?

1) '항미원조' 국가 서사의 변화: 기록영화 「항미원조」와 「영웅찬가」의 통시적 비교

'항미원조' 기록영화는 제작 과정에서 전지적 내레이터의 해설, 음향효과, 영상의 배치, 인터뷰 등 창작자의 주관과 허구성이 배제될 수는 없다. 그러나 극 영화와 달리, 실제 전쟁 현장의 긴박한 전투 장면과 영웅 인물의 인터뷰, 조선 모습을 담은 영상은 관객들에게 사실적이고 생생한 현장감을 선사했으며 그 자체로 볼거리였다. 또한,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국가의 전쟁 기억은 전쟁 형세와 당위성을 알리는 내레이션을 통해 대중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관방

8) 두 서사의 차이에 대해서는 마자오(馬釗)의 글을 참고할 수 있다. "관방 서사가 당의 방침과 정책, 국가 이익과 국제 전략의 기초 위에 수립되는 반면, 대중 서사는 지방적이고 일상적이며, 자기중심적이고 심지어 개인적인 것으로 일상 생활의 경험에서 온다. 두 서사는 긴장 대립하는 상태에 있는데, 대중 서사의 문예 작품을 통해 생활화, 영상화, 감정 처리된 추상적인 정치개념은 구체적으로 생동하는 인물, 스토리, 장면이 되어 일반 대중들이 보고, 읽고, 체험하고 상상하게 한다." 馬釗, 「政治、宣傳與文藝:冷戰時期中朝同盟關係的建構」, 『文化研究』, 2016년, 108쪽.

의 서사를 담은 기록영화는 대중서사의 극 영화와 분리해서 고찰할 수 있다.

「영웅찬가」는 1958년 성공적인 인민지원군 철수와 북·중 인민의 국제주의 우정을 기념하기 위해 중앙신문기록영화제작(中央新聞紀錄電影製片廠)에서 제작한 기록영화이다. 촬영팀은 1958년 3월 초부터 약 한 달 동안 북한에 체류하며 영상을 제작했고,⁹⁾ 그해 6월 25일부터 전국적으로 상영되었다.¹⁰⁾ 이 작품은 전쟁 시기부터 전후 사회주의 북한 건설까지를 다루고 있는데, 먼저 전쟁 시기 부분에서는 조선이 겪은 고통, 중국지원군의 참전과 양국이 이뤄낸 전쟁 승리의 역사를 되새긴다. 이는 전쟁 발발 이전부터 승리까지를 주 내용으로 다룬 1951년 기록영화 「항미원조」와 상호대응 된다. 예컨대, 평화로웠던 조선 땅에 미 제국주의에 의해 발발한 전쟁, 그로 인해 고통받는 조선 인민, 미국의 중국 영토(대만해협, 단둥) 침략, 조국과 조선을 지키기 위한 참전, 양국의 우의로 이뤄낸 승리가 그것이다. 하지만 두 작품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차이점은 51년과 58년 사이, 달라진 국내의 정세에 따른 중국의 새로운 사회주의 전망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첫째, 전작에서 강조했던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평화진영이 삭제되었다. 이는 58년 전후 달라진 중소관계를 투영하고 있는데 다음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둘째, '항미원조'의 필요성 및 의의가 '보가위국(保家衛國)'에서 '국제주의'로 기울어졌다. 이는 '위기'와 '애국'을 내세워 전쟁 동원이 시급했던 전시와 달리, 전후에는 국가의 공적 기억화 과정에서 당시 정세에 필요한 이데올로기 작업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선을 미제로부터 구해내는 지원군 전사의 국제주의 세계관 역시 제고되었는데, 1951년 대다수 '농촌 출신'의 가난했던 지원군이 자신처럼 착취 계급에 고통받는 조선 인민을 돕는 것에서, 1958년 '오로지 사회주의 대가정에서 볼 수 있는 친형제와 같은 감정'이라는 계급 이데올로기가 심화 되었으며, 지원군의 신분도 '농민'에서 '국제주의 의무를 지닌 중국 인민의 전사'로 호명된다. 셋째, 국제주의 이데올로기가 강조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주의 형제 국가로서의 북한 모습이 비중 있게 실렸다. 전작에서도 부상당한 지원군을 실어 나르며 치료해주고, 망가진 도로를 수리하는 북한 인민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

9) 王永宏, 「最可愛的人回來了」“英雄贊”拍攝散記, 『中國電影』, 1958년 06기.

10) 「英雄贊」紀錄影片25日陸續在全國上映, 『人民日報』, 1958.06.25

만 「영웅찬가」에서는 전투 중 다져진 ‘중조우의’를 강조하기 위해 지원군 못지않게 고군분투한 조선 인민 세 명(전선을 지원해 온 부녀자, 지원군의 어머니, 지원군을 위해 희생한 인민군 전사)을 ‘국제주의 영웅’으로 집중 조명하고 있다. 양국의 국제주의 우정으로 지켜낸 전후 북한의 희망찬 모습도 본 작품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이다. 평양의 시내, 학교, 교통 시설 등이 복구된 모습, 통통하게 불살이 오른 북한 아이들의 행복한 미소를 보여주며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함을 강조하고, 북한 문화계의 주요 인사인 시인 박세영과 무용수 최승희의 활발한 활동과 후배 양성을 조명하여 사회주의 문화의 풍요로움 또한 긴 폭으로 다루고 있다. 그렇다면 「영웅찬가」에서 말하는 ‘영웅’은 중국지원군만이 아니라 인민군을 포함한 북한 인민 모두를 포괄하는 것으로, 북한 인민들의 불굴의 의지, 근면함, 지원군을 위한 희생 그리고 원동(遠東)과 세계의 평화를 지켜낸 북한을 각각 영웅의 인민, 영웅의 진지(陣地)로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1950년대 신중국의 ‘항미원조’ 국가 서사는 통일되고 균질할 듯하지만, 휴전 후 북한 내 지원군이 전원 철수함에 따라 ‘항미원조’가 완료된 1958년을 기점으로 서사 틀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전쟁 시기’에서 ‘기억 서사’ 단계로의 이행이라 할 때, 「영웅찬가」는 그 전환기 서사 틀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2) 1950년대 후반, 중국식 사회주의로의 전환과 ‘항미원조’의 정치성

1950년대 전후반, 두 기록영화를 통해 ‘항미원조’ 기억 서사의 틀과 그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변화의 근원을 들여다보면, 건국 초 경제 재건은 물론 정부 조직, 학술, 이데올로기 등 신중국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소련과의 갈등 고조와 중국의 독자 노선 모색이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건국 초, 신중국의 연착륙을 이야기할 때, 한국전쟁 참전과 이를 계기로 이뤄진 소련 원조를 논하지 않을 수 없다. 항일전쟁과 내전으로 이어진 기나긴 전쟁으로 인해 건국 초 중공 정부는 통화팽창, 물가폭등, 실업, 기반시설 부족, 자연재해

등의 사회·경제적 문제들로 시달리고 있었고, 본래 계획했던 전 영토의 통일도 미완성이었다. 이런 열악한 조건 속에서, 신중국은 생존을 위한 현대화의 과업인 '공업화'를 수행해야만 했다. 하지만 모든 국가의 공업발전에는 충분한 자본과 기술력 혹은 국내외 시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당시 신중국은 너무나도 낙후했고 국외 시장도 한정되어 있었다. '분산되고 가난하고 낙후된 왕조 국가를 어떻게 새롭고 독립적인 공업화가 달성된 현대국가로 탈바꿈할 것인가?' 이것이 중공 정부 앞에 놓인 역사적 과업이었다면, 그들에게 남겨진 선택지는 오로지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진영뿐이었다. 중소 간 상호 신뢰는 마오쩌둥(이하 마오)의 참전 결정으로 이뤄진 한국전쟁 시기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참전은 스탈린이 그간 마오와 중국혁명에 대해 품고 있던 의구심을 불식시켰고, 소련의 전폭적인 군사, 경제적 원조가 이뤄졌다.¹¹⁾ 결과적으로 신중국의 참전은 지원군의 엄청난 희생, 서방 세계로부터의 고립, 그에 따른 소련 의존도 심화, 소련식 사회주의의 무조건적 도입이라는 대가를 치렀으나, 소련의 투자 덕분에 경제 재건, 군의 현대화 등 건국 초기 국가 안정화를 이뤄낼 수 있었다.¹²⁾ 하지만 당시 소련의 영향은 단순한 재정 지원이나 협력 차원이 아니었다. 중공이 '소련식 현대화'를 전방위적으로 학습·모방함에 따라, 당 조직, 행정, 교육, 문화, 외교, 도시계획, 민족정책 등 국가의 '전반적 소련화'가 이뤄졌다.¹³⁾ 중국 지식인 첸리훤은 신중국 성립 초기인 1950년대를 '우리 세대의 세계상상이 형성된 시기'였다고 회고한다. 그에 따르면, 당시 신중국 인민들의 세계는 사회제도와 이데올로기에 따라 서방과 동방으로 이분되었는데,¹⁴⁾ 중국이 속한 동방 세계에서 소련은 중국의 '사회주의 근대성'을

11) 마오 역시 "스탈린이 중공을 신뢰하게 된 중요한 요인은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지원군이 조선에 진입해 전쟁을 수행한 것 때문이다."라고 토로한 바 있다. 선즈화 저, 최만원 역, 『마오쩌둥 스탈린과 조선전쟁』, 선인, 2010년, 311쪽.

12) 중국은 1950~1959년까지 소련으로부터 총 54억 달러에 이르는 공업설비와 기술투자(전쟁 기간의 군사원조 포함)를 지원받게 되었고, 소련의 투자 덕분에 건국 초기의 경제 침체에서 신속하게 빠져나올 수 있었다. 원테권 지음, 김진공 옮김, 『여덟 번의 위기』, 돌베개, 2016년, 92, 98쪽 참고.

13)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오드 아르네 베스타 저, 문명기 옮김, 『잡 못 이루는 제국』, 까치, 2014년, 315-333쪽 참고.

14) 중국의 냉전적 세계관 속에서 서방이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을 의미하며 제국주의의 적으로 표상되었다면, 동방은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 그리고 서방 제국주의의 (반)식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학습 대상이었으며 ‘중국의 내일’이었다. 그렇다면 당시 소련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마르크스주의에서 말하는 하부구조는 물론 상부구조까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모범(模範)이었다고 볼 수 있다.¹⁵⁾

원테권은 1957년 갑작스러운 소련의 대중국 투자 중단으로 인해, 도시 공업화에 차질이 생겼고, 결국 지방의 공업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운동으로 ‘대약진’이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방은 공업화의 경험이 없었고 급진화 오류로 인해 1958-1960년 국가 경제의 대위기가 폭발한다.¹⁶⁾ 하지만 당시 소련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소련의 지원 중단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소련화 된 상부구조를 포함한 신중국의 ‘내일’의 상실, 즉 신중국의 국가 정체성과 전망의 위기였다. 1958년은 중소 갈등의 ‘내부적 다툼’ 초기였기 때문에,¹⁷⁾ 비록 인민들을 대상으로 공개적인 소련 비판을 전개하진 않았지만,¹⁸⁾ 내외부적으로는 국가건설, 외교, 이데올로기 등 각 방면에서 소련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중국식 사회주의’ 발전노선을 모색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중국의 독자적인 경제건설 시도가 ‘대약진운동’이

지었던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를 의미했다. 錢理群, 『我們這一代人的世界想像』, 『書城』, 2006년 6기, 15쪽.

- 15) 소련 모델은 ‘대중노선’을 견지하는 마오의 연안 모델과 차이가 있었으나 건국 초기, 큰 방향에서 소련의 경험을 따라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신중국의 제1차 5개년 경제 개발 계획도 소련식 발전 모델을 모방한 것이다. 하지만 1956년 니키타 흐루쇼프의 스탈린 격하 발언을 계기로, 소련 중심의 사회주의 진영이 흔들리게 되고 중국과 세계 사회주의 국가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한다. 1957년 말 대약진운동은 마오주의 개념이 실행에 옮겨진 사례로 볼 수 있다. 첸리권 지음, 연광석 옮김, 『모택동 시대와 포스트 모택동 시대 1949~2009 (상)』, 한울 아카데미, 2012년, 110쪽. 모리스 마이스너 지음, 김수영 옮김, 『마오의 중국과 그 이후1』, 이산, 2014년, 232쪽 참고.
- 16) 원테권 지음, 김진공 옮김, 『백년의 급진: 중국의 현대를 성찰하다』, 돌베개, 2013년, 44-46쪽 참고.
- 17) 셴즈화(沈志華)와 리단후이(李丹慧)는 스탈린 사후 중소 양당, 양국 관계가 우호에서 분열에 이르는 기본 과정을 4단계로 구분한다. 1954-1957년(친밀 우호), 1958-1959년(내부적 다툼), 1960-1964년(분기의 공개화), 1965-1969년(철저한 결렬). 2017년 한국 성균관 대학교 동ASIA학술원·한국 냉전학회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사회주의 국제주의와 연대의 딜레마』, 6쪽.
- 18) 최명해에 따르면, 북·중 언론 논조에는 60년 말까지도 “소련을 정점으로 한 사회주의 진영의 단결”이라는 문구가 등장하는데, 이는 미국이라는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다분히 현실적이고 ‘전략적 사고’에 기반을 둔 것이다. 최명해, 『중국·북한 동맹 관계』, 도서출판 오름, 2009년, 146쪽.

었다면, 외교 측면에서는 기존의 위계적 질서에서 탈피하여 자주적이고도 다변화된 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힘썼다. 이는 1950년대 초반부터 중국이 여러 국가 간의 단결과 화합을 강조했던 외교방침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다. 1952년 12월 아시아·아랍 12개국 회의에서 약소국과 신생국들도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와 국제공조를 주장하고, 1955년 4월에는 아시아·아프리카 신생국 29개국이 모여 반동회의를 개최, 반제·반식민주의적 민족주의라는 정치이념과 평화공존 비동맹 중립전략이라는 외교 노선으로 요약되는 '평화 10개 원칙'을 발표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접경국을 가진 나라이다.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국가만 14개국이고 8개국과는 해양을 마주하고 있다. 미소 냉전적 세계질서 틈바구니에서 지구적 노력으로 국가건설을 추진해야 하는 중국에게 안정적인 주변 국제환경 조성은 필수 전제 조건이었을 것이다. 1958년 북한 내 철근도 국익을 도모하기 위한 중국의 평화적 외교 연장선에서 이해될 수 있다.¹⁹⁾ 북한은 줄곧 지리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중국의 중요한 접경국이었고 격화되는 중소 갈등 국면 속에서도 북한과의 평화적 관계는 소련 견제에 필수적이었다. 또한 흐루쇼프가 집권하면서 형성된 반스탈린주의, 개인숭배 반대 등의 새로운 공산주의 흐름은 두 지도자 모두에게 독자 노선과 일인체제 구축 필요성을 절감하게 했고,²⁰⁾ 그러한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전쟁 시기부터 줄곧 협조와 갈등을 반복해 온 양국이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한 협력적 상호작용을 이뤄낼 수 있었다.²¹⁾

- 19) 중국 인민지원군의 철수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은 약간씩 차이가 있으며,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건설의 완성 시기와 지원군 철수를 연계. 둘째, 대약진운동, 사회주의 체제건설 완수 등 중국 국내 문제가 지원군 철수를 야기. 셋째, 군사적 지원에서 경제적 지원으로 전환하며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키려는 중국의 의도 때문. 박영실, 『중국 인민지원군과 북·중 관계』, 선인, 2012년, 238-240쪽.
- 20) 북한이 중국과의 대외노선 일치화를 시도한 시점도, 대내 경제 정책상의 노선 일치화도 중국 인민지원군이 본격 철수하는 1958년 중반부터이다. 1958년 7월 16일 『홍기(紅旗)』에서 마오가 인민공사 제도와 대약진운동을 통해 중국과 아시아 제국들이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를 신속히 달성할 수 있는 독자적 방법을 발견했다고 역설하였고, 북한은 1958년 9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 회의를 통해 중국의 대약진운동을 모방한 천리마 운동과 농업 집단화 정책 추진을 결정하였다. 최명해, 위의 책, 141쪽.
- 21) 필자가 1950년부터 1976년까지 『인민일보』에 실린 기사에서 '중조우의'를 키워드로 검색해 본 결과, 전 시기를 통틀어 1958년이 0.24%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반면, 1950~1953년까지 전쟁 시기에는 '중조우의'는 거의 없고 '항미원조' 관련 기사가 많다. 이

이처럼 1958년 전후 소련의 지원 중단, 중국의 독자 노선 추진, 북·중 관계 개선 등 중국의 국내외적 환경을 고려할 때, 대대적인 ‘항미원조’ 승리와 ‘중조우’의 국제주의 선전이 그러한 정치적 요구에 부합했음을 알 수 있다. 문예 작품 속 신중국, 신인민의 자아 형상으로 볼 수 있는 ‘인민지원군’의 혁명 영웅주의와 희생 정신은 한껏 고양된 계급투쟁과 내셔널리즘 열정과 맞물리면서 인민들을 단합하고 ‘삼면홍기(총노선, 대약진, 인민공사)’를 성공으로 이끄는 데 효과적이었다. 또한, 이 전쟁 승리로 지켜낸 조선은 일찍이 중국이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피억압 민족의 저항운동에 일정한 몫을 했다는 역사적 증거로, 소련의 길이 아닌 중국이 영도하는 세계혁명에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3. 전쟁 기억의 문화적 재현은 ‘어떻게’ 이뤄졌는가?

1) 서사 층위에 따라: 기록영화 「영웅찬가」와 극 영화 「우의」

1958년 철군 후 ‘중조우’를 다룬 첫 번째 극 영화 「우의」(1959)가 기존의 ‘항미원조’ 문예 서사와는 차별점을 보이면서도, 기록영화 「영웅찬가」 속 국제주의 재현 방식을 따라가지 않는 점은 흥미롭다. 이 영화는 포로를 압송하던 지원군들이 적군들에게 학대당하는 무고한 조선 인민들을 목격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만삭인 조선 부녀자 순이는 참다못해 채찍을 빼앗아 적군을 내려치고 도망치지만, 결국 적의 총에 맞아 쓰러진다. 멀리서 이를 지켜보던 지원군들은 순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들의 부대로 데려가고, 연락을 받은 지원군 군의관과 간호사도 무자비한 적군의 공습을 뚫고 한결음에 달려온다. 지원군들의 헌신적인 보살핌 속에서 순이는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하게 되고 지원군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담아 아이 이름을 ‘우의’라고 짓는다. 그러던 어느 날, 지원군 중대장이 자신이 살던 마을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곤경에 처하게 되고, 순이는 그를 구하기 위해 지원군들 몰래 수류

것이 절대적인 사실을 증명할 순 없지만, 항미원조 시기보다도 1958년 철군을 기점으로 문혁 이전까지 ‘중조우’의 메시지가 강조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탄을 들고 마을로 들어간다. 부상을 당한 중대장은 순이의 시어머니에게 발견되어 치료를 받지만, 적군이 집에 들이닥쳐 결국 붙잡히고 만다. 때마침 도착한 순이는 그들을 구하기 위해 적을 유인하고 적군과 함께 자진한다. 중대장은 순이의 도움으로 진격 계획을 제때 알려 전투를 승리로 이끈다. 영화는 순이의 생명을 살린 지원군의 시어머니에게 “이 아이가 우리의 ‘우의’입니다.”라고 아이를 안겨주며 끝이 난다. 그렇다면 ‘우의’는 한국전쟁을 거치며 돈독해진 북·중 국제주의의 상징이자, 양국이 함께 지켜낸 동방의 전초기지 ‘조선’의 다음 세대이다.

50년대 초중반, ‘항미원조’ 문학에서 지원군의 참전 필요성과 국제주의를 피력하는 방식은 조선을 ‘전쟁 피해자’로 묘사하여 미국의 잔악함과 조선에 대한 연민을 끌어내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작품 속에서 조선은 그곳의 유일한 ‘남성’ 중국지원군과 그들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여성’과 ‘아동들’로 상상되었다. 그런데 영화 속 부녀자 순이는 더 이상 지원군의 보호만을 기다리는 나약하고 수동적인 여성 형상이 아니다. 기존의 국제주의 재현 방식에서 탈피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조선인이 극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이 영화는 과거 흥색경전인 『상감령(上甘嶺)』(1956)에서 조선이 전쟁이 벌어지는 추상적인 공간으로만 자리하던 것보다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자아’ 주체가 ‘타자’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인식되며 그 소속감 안에서 관계를 맺으며 확립된다고 볼 때, 1958년 이후에 달라진 ‘타자’ 조선 형상은 새로운 ‘자아’ 지원군 형상의 필요에 따른 것이다. 다시 말해, 과거 ‘농민’ 신분이었던 지원군이 이 시기 ‘국제주의 영웅 전사’로 승격되어 나타나는 혁명 이데올로기의 강화는 반제국주의와 식민에 맞선 ‘계급의 형제’로서의 조선 형상화의 호응이 필요했던 것이다.

지원군 중대장의 대사를 통해서도 기존의 상하 위계적인 혹은 젠더화 된 국제주의 전달 방식이 달라졌음을 보여주는데, 순이와 중대장의 대화를 통해 서로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순이는 지원군들처럼 자신들보다 조선 인민을 더 위하고 사랑하는 군대가 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느냐며 감사함을 표한다. 이에 중대장은 순이에게 다음과 같이 답한다.

“마오 주석이 우리를 지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지해주고 보살피주는 조선 인민들에게 감사해요. (중략) 추운 겨울 우리에게 더운 방을 내주고, 어머니는 얼음을 깨서 부상병을 위해 옷을 빨아주었죠. 어떤 구조대원은 부상 당한 지원군 안전을 위해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바치기도 합니다! (중략) 조선 인민은 영웅의 인민이고, 미제국주의 침략에 반항하는 이 전쟁은 조선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의 사회주의 건설을 돕고 세계평화를 지키는 거예요.”²²⁾

그의 대사 속 조선이야말로 관방을 대변하는 「영웅찬가」 속 ‘영웅의 조선’이며 동방을 지키는 전초기지로서의 제 몫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조선인은 여전히 오직 여성뿐(순이, 시어머니)이고, 적들과 총을 들고 조선 인민을 지켜내는 보호자의 몫은 지원군이다. 중대장이 언급한 영웅적인 조선 인민 중에는 총을 들고 피 흘리며 함께 싸운 조선인민군 ‘전우’는 없다. 다시 말해, 「영웅찬가」와 달리 영화는 1950년대 기존의 국제주의를 표달하는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것이다. 새로운 정책 방향, 이데올로기 등 미래지향적이고 급진적인 당의 메시지를 담은 관방서사가 대중에게 친숙한 방식의 대중서사를 통해 일상에 녹아들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를 증명하듯, 「영웅찬가」 속 조선의 모습은 시간이 조금 흐른 뒤 1960년대 특히 문화대혁명 전야의 극 영화 「영웅아녀(英雄兒女)」(1964), 「침략자를 물리치자(打擊侵略者)」(1965)에서 뚜렷해진다.

2) 창작 주체에 따라: 북·중 영화 속 재현된 국제주의 차이

1958년 지원군 철수를 기념하여 북·중 우애를 대대적으로 선전한 것은 중국만이 아니다. 1958년 조선 필름에서 제작한 「전우」는 상하이영화더빙제작소(上

22) “這是毛主席教導我們的。我們非常感謝朝鮮人民，對我們的關懷和支援。在冰天雪地、寒風刺骨的時候，你們寧願自己受凍，也要把房子和暖炕讓出來給我們住。在零下三十度的嚴寒裏，老媽媽打開冰河，給志願軍傷員洗衣上。有的朝鮮擔架員，爲了一個志願軍傷員的安全，可以獻出自己寶貴的生命！大嫂，朝鮮人民是英雄的人民，朝鮮人民反抗美帝國主義侵略的戰爭，不僅保衛了自己的祖國，而且也積極地支援了我們祖國的社會主義建設，保衛了世界和平。”

海電影譯制廠)를 거쳐 1959년 상영되었고, 중국 인민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이 영화는 조선인민군 제567부대와 지원군 300부대가 협동 연출했으며 지원군을 주인공으로 하는 첫 북한 영화이다. 또한 도입부에 지원군의 공로에 감사하는 김일성 어록이 삽입된 것으로 보아,²³⁾ 이 영화가 기획 단계부터 중국 상영을 염두에 둔 헌정 영화였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영화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인민군 분대장 김일용과 부하 전사는 정찰 임무 수행 중 적군에 쫓기게 되고 우연히 지원군 야오즈강(姚志剛)과 합류하게 된다. 적군의 추격이 심해지자, 인민군 김일용은 부상을 입었음에도 두 전사를 보내고 혼자 남아 적을 유인한다. 김일용 덕분에 목숨을 구한 지원군은 부대 복귀 도중, 미군 폭격으로 죽을 뻔한 조선 아이 이용을 구하고 쓰러진다. 다행히 그는 이용의 어머니 간호 덕분에 회복하게 되고 임무 수행을 위해 길을 떠난다. 전투를 앞두고 조선 어머니와 재회한 지원군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인민군 분대장이 그의 큰아들임을 알게 된다. 고지를 쟁탈하기 위한 적군과의 전투에서 북·중 양국은 긴밀한 연합 작전과 조선 인민의 도움으로 끝내 승리한다. 조선 어머니는 양손에 지원군 아들과 인민군 아들의 손을 잡고 승리한 고지를 바라본다.

북·중 국제주의의 우의를 주제로 한 이 영화는 양국의 긴밀한 연계, 조선 인민의 도움, 용맹한 지원군, 그 지원군을 아들처럼 생각하는 조선의 어머니, 조선이 겪는 고통에 자신의 해방 전 불행했던 삶을 떠올리는 지원군의 모습 등 기존의 중국 '항미원조' 서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동일한 주제와 서사 틀을 사용하고 또 지원군이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재현한 국제주의는 중국과 몇 가지 차이를 보인다.

첫째, 중국지원군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임에도 조선인민군 지위가 그보다 높고 극의 클라이맥스도 인민군이 장식한다. 영화 초반, 지원군의 목숨을 구해준 인민군 분대장의 모습은 중국의 '항미원조' 영화에서 지원군 상사가 부하 전사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모범이 되는 장면과 겹쳐진다. 또 마지막 전투에서 적들과 용

23) “中國人民志願軍在朝鮮戰爭中樹立了不朽的功勳。它將同朝鮮的美麗河山一道永遠發出光芒!”

맹하게 싸워 승리를 결정짓는 것도 지원군이 아닌 인민군이다. 비록 '전우'라는 이름으로 양국이 하나 되지만 그 안에서는 전사들의 지위를 상하 관계로 설정하고, 전투의 클라이맥스 역시 인민군 전사가 주도한다. 둘째, 전투는 중국지원군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북·중 연합 작전'으로 그려진다. 같은 주제의 중국 영화에서도 전투는 종종 연합 작전으로 설정되지만, 조선인민군은 거의 등장하지 않고 양국 지휘관 간의 무전 장면을 넣는 등 형식적으로 처리된다. 반면, 이 영화에서는 작전 수립부터 수행, 승리에 이르기까지 주요 장면으로 등장한다. 또한 영화 속 중국지원군 지휘관은 등장할 때마다, 조선이 과거 중국의 항일전쟁을 도왔던 역사를 언급하며 필승을 위해 이번에도 양국의 연합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여기서 북한이 '국제주의'를 이해하는 방식을 엿볼 수 있는데, 사회주의 프롤레타리아의 계급 연대로 해석되는 중국의 원조(援朝)가 과거의 도움에 보답하는 도의적이고 마땅한 것임을 은연중에 투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재현 방식은 중국이 북한을 '보호가 필요한 여성 혹은 미성년'으로, 지원군은 조선의 유일한 남성이자 수호자로 형상화함으로써, 국제주의를 '혁명 대가정' 속 '가장(家長)의 책임'으로 해석하는 방식과 선명한 차이를 보인다. 셋째, 조선인민군 이외에 청장년층의 조선 남자들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상술한 것처럼 중국의 '항미원조' 영화, 문학 속에서는 남성 특히 조선인민군은 좀처럼 등장하지 않는다. 이것은 한국전쟁을 '중·미 전쟁'으로 그려내 강한 미군과 싸워 이기는 중국지원군의 영웅적 면모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조선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존재하는 인민군 김일용의 '온전한' 가정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기존 중국 항미원조 문예 속 조선 형상화 틀이 깨진다. 극 중, 그의 아버지를 비롯한 청장년층의 남성 조선인들은 자발적으로 구조대(擔架隊)를 조직해 전투 중 부상병을 옮기는 일을 맡는다. 김일용의 아버지가 비바람이 뚫고 진흙탕을 걸어 부상병을 나르는 모습, 적의 공습으로 총상을 입고도 무사히 부상병을 옮기고 희생되는 장면 또한, '중조우애'의 북한식 해석 즉, 상호 호혜의 국제주의를 강조하는 것이다.

전쟁 서사에서 '누가 누구를 지키는가'는 '누가 누구의 적인가' 하는 문제만큼 중요하다. '해방전쟁의 해외판'으로 그려내야 했을 중국에게도, '조국 해방전쟁'으로

소화해야 할 북한에게도 '국제주의 온정을 베푸는 자 누구인가?', '상호호혜적인가 아니면 일방적인 원조(援助)인가를 피력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였을 것이다. 영화 속 북한이 해석한 전쟁 기억이 중국 기록영화 속 관방서사와 맞아떨어진다는 점은 '서사 주체'에 따른 국제주의 전달의 차이를 부각시킬 뿐 아니라, 중국의 도움을 받은 이 전쟁을 '조국 해방전쟁'으로 국가 서사화해야 하는 북한의 난처함도 엿볼 수 있다.

4. 나오며

기억된 과거는 정당성의 확보 문제이자 현실의 해석이라는 알라이다 아스만의 주장처럼, 건국 초 중국 인민들에게 민족 자존감과 초보적 국제주의 경험을 남긴 '항미원조'는 1958년 변화된 국내외 정세에 따른 새로운 정치적 임무에 맞게 소환되고 재구성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1958년을 '기억된 과거'의 주요 기점으로 삼아, '항미원조'가 다시금 '왜' 그리고 '어떻게' 기억되었는가를 고찰해 보았다.

먼저 2장에서는 1958년 기록영화 「영웅찬가」를 공적 기억 서사의 틀로 삼아, 전쟁 시기와 회고시기 사이 '항미원조' 국가 서사 변화에 담겨 있는 중국의 당면 위기와 새로운 혁명 전망을 고찰하였다. 소련의 지원 철회와 국제 고립 속에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 시기, 마오는 '사회주의로의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판단하고²⁴⁾ '삼면홍기'의 공산 사회주의 유토피아를 시행한다. 한편, 1958년은 철근과 북·중 이해관계로 인해 '중조우의'가 가장 드높았던 시기였다. 전쟁을 거치며 둘도 없는 '계급의 형제'로 자리매김한 북한은 중국의 새로운 자아승인을 위한 '타자'이자 '상상의 공동체'가 되어주었다. '항미원조' 서사가 담고 있는 혁명적 애국주의, 희생적 영웅주의, 국제주의 정신은 이러한 정치적 요구에 부합했기 때문에 제2의 절정기를 맞이할 수 있었다. 이어지는 3장에서는 전쟁 기억의 문화적 재현 양상을 '서사 층위'와 '창작 주체'로 나누어 다층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그 결과,

24) 모리스 마이스너, 위의 책, 299쪽.

‘서사 층위’에서는 철군 후 중조우의를 다룬 첫 번째 극 영화 「우의」가 1958년 기록영화 「영웅찬가」 속 관방의 달라진 ‘항미원조’ 국가 서사를 반영하면서도, 기존 대중서사 속 국제주의 표달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음을 확인했다. 북·중 영화 비교를 통해서 ‘창작 주체’에 따른 양국의 재현된 국제주의 차이를 발견하고, 한국전쟁을 국가서사화 해야 하는 북한의 난처함도 엿볼 수 있었다.

한국전쟁에 대한 중국적 맥락을 고찰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역사, 군사, 외교적 측면에 집중되어, 이 전쟁을 겪어낸 대중의 문화적 기억에 주목한 연구는 많지 않다. 당시 인민의 기억이 당의 주도 아래 만들어진 것일지라도, 이 전쟁과 관련된 기억이 신중국 인민들의 냉전적 주체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고 또 지금의 중국과도 맥이 닿아 있다면, 그들에게 ‘항미원조’는 무엇이었고 또 어떻게 기억되었는가를 묻는 것은 과거와 현재의 중국을 이해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參考文獻〉

- 기록영화 「항미원조(抗美援朝)」, 北京電影制片廠, 1951년.
 「영웅찬가(英雄贊)」, 中央新聞紀錄電影制片廠, 1958년.
 극영화 「우의(友誼)」, 中國八一電影制片廠, 1959년.
 「전우(戰友)」, 조선 필름, 1959년.
 王永宏, 「最可愛的人回來了”“英雄贊”拍攝散記」, 『中國電影』, 1958년 06기.
 「“英雄贊”紀錄影片25日陸續在全國上映」, 『人民日報』, 1958.06.25.
 洪子誠, 『中國當代文學史』(修訂版),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9년.
 戴錦華, 「歷史敘事與話語: 十七年歷史題材影片二題」, 『北京電影學院學報』, 1991년.
 秦亞青·朱立群, 「新國際主義與中國外交」, 『外交評論』, 2005년 5기.
 侯松濤, 「抗美援朝運動與民衆社會心態研究」, 『中共黨史研究』, 2005년 2기.
 錢理群, 「我們這一代人的世界想像」, 『書城』, 2006년 6기.
 常彬, 「抗美援朝文學敘事中的政治與人性」, 『文學評論』, 2007년.
 王敏, 「主體規訓與媒介選擇: 十七年時期電影與農民關係辯證」, 『河南廣播電視大學學報』, 2007년.
 羅小茗編, 『制造“國民”: 1950-1970年代的日常生活與文化實踐』, 上海書店出版社, 2011년.

- 馬鈞, 「政治、宣傳與文藝：冷戰時期中朝同盟關係的建構」, 『文化研究』, 2016년.
- 韓潭, 「新中國初期冷戰世界觀考察：以1950年代抗美援朝文學爲中心」, 『中國現代文學』, 2017년.
- 왕후이, 백원담, 「20세기 중국 역사의 시각에서 본 아시아 평화: 항미원조 전쟁(6·25)을 다시 보며」, 『황해문화』 제83호.
- 2017년 한국 성균관대학교 동ASIA학술원 · 한국 냉전학회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사회주의 국제주의와 연대의 딜레마』.
- 알라이다 아스만 저, 변학수 · 채연숙 역, 『기억의 공간: 문화적 기억의 형식과 변천』, 서울: 그린비, 2011년.
- 선즈화 저, 최만원 역, 『마오쩌둥 스탈린과 조선전쟁』, 서울: 선인, 2010년.
- 원테권 지음, 김진공 옮김, 『백년의 급진: 중국의 현대를 성찰하다』, 경기: 돌베개, 2013년.
- 원테권 지음, 김진공 옮김, 『여덟 번의 위기: 현대 중국의 경험과 도전, 1949~2009』, 경기: 돌베개, 2016년.
- 오드 아르네 베스타 저, 문명기 옮김, 『잠 못 이루는 제국: 1750년 이후의 중국과 세계』, 서울: 까치, 2014년.
- 첸리첸 지음, 영광석 옮김, 『모택동 시대와 포스트 모택동 시대 1949~2009(상)』, 경기: 한울 아카데미, 2012년.
- 모리스 마이스너 지음, 김수영 옮김, 『마오의 중국과 그 이후 1』, 서울: 이산, 2014년.
- 최명해, 『중국 · 북한 동맹 관계』, 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9년.
- 박영실, 『중국 인민지원군과 북 · 중 관계』, 서울: 선인, 2012년.

〈Abstract〉

The Political Nature and Multilayered Cultural Representations of the War to Resist America and Aid Korea in 1958

Han, Dam

When Chinese People's Volunteer Army retreat from N. Korea in 1958, the second peak of literary creation on the subject of the War to Resist America and Aid Korea

is coming. Aleida Assmann said 'remembered past' is a matter of securing legitimacy and interpretation of reality. As she said, in the beginning of the nation, this war left the Chinese people national pride and a elementary experience of internationalism. It has been summoned and reorganized to meet the new political mission of chang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situations in 1958.

This article is purposed to review why and how this war was remembered in 1958 as a main turning point. I particularly focused on Chinese memories of the Korean War seem uniform on the surface, but it is not homogenous inside. Thus, this paper considered diachronic change, narrative levels and creative subjects as the key factors that make up a memory.

First, through focusing on documentary films 'The War to Resist U.S and Aid Korea (『抗美援朝』)(1951) and 'The sing for Heros(『英雄贊』)(1958) as the official narrative, analyzed a background of the recall of war and the political nature. Second, considered the difference between official and popular narratives through analyzing a film drama 'Friendship(『友誼』)(1959). And we can discover the difference in the imagination of N. Korea and China's internationalism by comparing N. Korean film showed in China 'Comrade in arms(『戰友』)(1959) at the last.

Key words: 1958 in China, The War to Resist America and Aid Korea. War and Remembrance, Cultural Representations, Official and Popular Narratives

이 논문은 2019년 1월 15일에 접수되어 2019년 2월 8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9년 2월 11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